

전남도 소상공인 살리기 5500억원 규모 신규보증

전남신보 '12345 프로젝트' 발표... 지난해보다 1000억원 증액
시장 친화 보증상품 다양화·취약지 금융버스 '가드림' 운행 확대
경영개선 교육·라이브커머스 플랫폼 구축 등 비금융 지원도 강화

전남도 출연기관인 전남신보(전남신보)이 올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보증 규모를 55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이어 금융 소외지역 지원 강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전남경제 활성화' 비전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전남신보는 지난 22일 열린 경영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345' 슬로건을 발표하고 올해를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종합플랫폼으로

대응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신규보증 공급 규모를 전년 대비 1000억원이 늘어난 5500억원으로 증액한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기화 된 지역민들의 소비위축과 최근 고금리 기조 등으로 지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신규보증 증액과 기준 보증서 대출의 기한 연장 금액을 합산하면 총 보증공급은 1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증공

급 확대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친화적인 보증상품도 확대 시행한다. 창업 기업 지원 특별보증 100억원, 신성장 기반산업 육성 특별보증 100억원, 베임목 마이너스 통장 보증 100억원, 중·저신용 사업자 전용 특별보증 300억원 등 다양한 규모의 신규 보증상품을 운영함으로써 창업 초기 소상공인과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등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민의 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안정 폐기지도 지원한다. 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 코로나 피해 보증 분할상환, 브릿지보증 지원을 마련했으며, 신규보증 보증료율 0.8% 초과분에 대해서는 3억원 규모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남신보는 타 지역 대비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전남지역 특성을 반영해 금융버스 '가드림'

지원도 강화한다.

가드림은 전용버스에 센터를 구성해 금융서비스 취약 지역에 직접 찾아간 뒤 현장에서 보증 상담, 대출, 경영지도, 재무조정, 금융교육 등을 제공하는 종합 금융서비스다. 전남신보는 가드림을 통해 지난해 기준 연 50회 이상 현장 지원을 실시해 '2025년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날'에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올해는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한다는 운영 방침에 따라 매주 1~2회, 연 70회 이상 가드림이 전남지역 곳곳을 찾아갈 예정이다. 특히 고성과 영암에는 월 2회 정기운영을 시행하는 등 금융소외지역 소상공인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남신보는 단순 자금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의 창업부 터 경영 전반에 이르는 비금융 지원도 체계화한다.

대표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 소재 2000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창업학습 및 경영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성장유망기업 5개 업체를 선정해 육성한다. 지역 50개 업체가 참여하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장이음 페스티벌도 추진한다.

또 전남도와 함께 1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해당 사업은 1인 자영업자와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예산은 1억 5000만원 규모로 전년 대비 3000만원 늘렸다.

이강근 전남신보 이사장은 "지난해는 보증공급 확대, 리스크관리 강화, 출연금 확보 등 트리플 크라운 성과를 달성하는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기반을 강화했다"며 "올해는 현장 중심의 종합 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올해 광주 성장률 2.1% 전망... 민간소비·설비투자 '훈풍'

광주연구원 경제전망 발표

지난해 1.9% 대비 0.2%p 상승

올해 광주 경제가 민간 소비 회복과 인공지능(AI)·마리아 등 설비 투자 확대에 힘입어 2.1%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면 지역 경제의 한 축인 건설 경기는 고금리 여파 등으로 여전히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광주연구원(원장 최치국)은 최근 '광주정책포커스 23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광주광역시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광주시의 실질 지역내 총생산(GDP) 성장을 전망하는 2.1%다.

이는 지난해(2025년) 추정치인 1.9%보다 0.2%p 상승한 수치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내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하방 시나리오에서는

1.8%, 상방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2.4%까지 성장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물가 안정과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 구매력 회복으로 지난 해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설비투자' 역시 지역 내 AI 산업 인프라 확충과 미래 모빌리티 전환 기술화에 힘입어 2.8%의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수출 부문도 긍정적이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자동차 산업의 호조가 지속되면서 올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191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은 내수 회복에 따른 자본재 수요 증가로 2.0% 늘어난 90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

고금리 여파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신규 주택 착공이 위축돼,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5% 감소할 것

으로 전망됐다.

고용 시장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점차 진다. 올해 광주 지역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0.8% 증가한 77만6천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실업률은 2.6%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안정 등의 영향으로 2.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연구원은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관세 인상 등)와 국내 내수 회복 속도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난해 15~29세 자영업자는 15만4000명으로 1년 새 3만3000명 감소했다. 2023년(-2만2000명)과 2024년(-3000명)에 이어 3년째 감소세다.

30대도 63만6000명으로 3만6000명 줄었다. 마찬가지로 2023년(-1000명), 2024년(-3만5000명)에 이어 3년 연속 줄었다. 15~29세 자영업자는 숙박·음식점업과 배달라이더 등이 포함된 운수 창고업, 30대는 운수창고업과 도소매업에서 주로 감소했다는 게 데이터처 설명이다.

40대와 50대는 각각 3000명, 3만4000명 감소했다. 반면 은퇴 연령대인 60세 이상은 6만8000명 늘어난 21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16년(4만5000명)부터 10년 연속 증가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반짝추경'에도 자영업 5년만에 최대폭 감소

내수부진 속 2년째 3만명대 줄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보강책에도 자영업자가 2년 연속 3만명대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20·30대 감소 폭이 커졌다.

2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는 562만명으로 전년보다 3만8000명 줄면서 코로나19 때인 2020년 이후로 5년만에 감소폭이 가장 커졌다.

2024년(-3만2000명)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이기도 하다.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7만5000명 급감한 뒤 2021년도 1만8000명 줄었다. 이후 격리 완화와 엔데믹 영향으로 2022년 11만9000명, 2023년 5만7000명 각각 늘며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2024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누적된 고금리와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해 소비쿠폰을 지급해 경기 회복에 나서면서 반짝 효과가 났지만 자영업 경기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청년 자영업자의 타격이 커졌다.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40대와 50대는 각각 3000명, 3만4000명 감소했다. 반면 은퇴 연령대인 60세 이상은 6만8000명 늘어난 21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16년(4만5000명)부터 10년 연속 증가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감성경영과 소통리더십... 배려와 존중이 갈등 줄인다

광주경총 금요 조찬 포럼

조영근 연구원장 초청 특강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지난 23일 허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조영근 하이테크경영연구원장을 초청해 제171회 금요조찬 포럼 특강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이번 포럼은 '감성경영과 소통리더십'을 주제로 의견 존중의 필요성과 리더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연은 '지금 세계는? 세상의 트렌드 일기'를 시작으로 '감성 리더십의 필요성', '경영과 목표 달성의 원리', '감성리더의 인간 이해', '뇌의 이해', '이모션노믹스', '관계를 만드는 소통의 기술', '감성리더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감성리더의 학습 기술'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조영근 원장은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을 중심



으로 감성리더십의 실천 방향을 특강하고, 강연 말미에는 '예스'(YES), '마음', '지지'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기업 경영에 있어 사람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보고 구성원의 감정·

욕구·가치를 이해해 배려와 존중으로 대우하는 경영 철학을 가져야 한다"며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뢰와 협력을 높이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진 5개 항공사,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속 5개 항공사는 "26일부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 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등 전자기기 to 충전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들고 타는 것 자체는 가능 하지만, 기내 반입 규정에 명시된 보조배터리 용량·개수 제한(100Wh 이하 1인 5개)을 준수해야 한다. 항공기 탑승 전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부착하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보조배터리를 한 개씩 넣어 보관하는 등의 단락(합선) 방지 조치도 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한 이후에는 승객 본인의 손이 닿는 곳에 직접 휴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 혹은 앞 좌석 하단에 보관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상 정후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져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보조배터리에 내재된 리튬이온 전지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내외 항공업계에서는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경제 전문가 54% "당분간 1%대 저성장 기조"

올해 성장률 1.8% 전망

국내 경제 전문가의 절반 이상이 당분간 우리 경제가 1%대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기총협회(경총)는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6~18일 전국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우리 경제가 당분간(최소 올해까지) 1%대의 저성장 기조를 보일 것이라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응답자 36%는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회복해 내년부터 평균 2%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6%는 향후 1%대 성장을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관측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들의 올해 경제성장을 전망하는 평

균 1.8%로 집계됐다. 이달 나온 정부 전망치(2.0%)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1.9%)보다는 다소 낮다.

올해 원/달러 환율은 평균 전망은 최저 1403원에 최고 1516원으로 조사됐다. 고환율 기조 지속의 주된 원인으로는 한미 간 금리 격차(53%)와 기업·개인 등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화 수요 증가(51%) 등이 꼽혔다.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 가운데 미국 관세 정책은 부정적 영향이 끊 것으로 우려하는 경제 전문가가 많았지만,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는 경우도 상당수로 나타났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미칠 부정적 영향(대미 수출 감소, 국내 투자 위축 등)에 대한 전망은 '높다'가 58%, '낮다'가 23%로 나타났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외국인 보유주식 비중 5년 9개월여만 최대

이달 들어 조선·방산·원전 집중